

합성섬유의 고기능성과 천연섬유의 질감을 융합한 유니폼용 소재 「Pentas[®]UF」

TORAY社は 특수 단면 고기능성 폴리에스터 단섬유 Pentas[®]α를 사용하여 합성섬유의 우수한 기능성과 천연섬유의 질감을 동시에 갖는 유니폼용 신소재 Pentas[®]UF를 개발하였다. 첫 번째로 개발된 Pentas[®]UF 소재는 자외선차단성, 차열성, 비침방지성, 흡수속건성이 우수한 봄·여름 시즌 유니폼용 소재이다.

2014년에 TORAY社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유니폼에 필요한 기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야외 업무를 하는 작업자의 45 % 이상이 자외선차단성을 요구하였다. 또한 건설업, 운수업 및 서비스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여성이나 고령자가 활동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성과 질감을 높은 수준으로 양립시키는 유니폼용 소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위한 일손 부족이 우려되어 쾌적한 유니폼을 채택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유니폼용 소재는 일반 폴리에스터 단섬유를 사용하는 원단이 주류였으며, 높은 기능을 갖는 특수 폴리에스터 단섬유를 사용하는 원단은 제한적이었다. Pentas[®]UF는 표면에 마이크로 수준의 미세한 요철이 많이 존재하는 폴리에스터 단섬유 Pentas[®]α로 제조된 원단이다. Pentas[®]α는 표면 요철에 의한 빛의 난반사로 자외선 차단성, 차열성, 비침방지성 등의 기능성을 발휘한다. Pentas[®]α의 특징을 고려하여 특수한 방적, 원단설계, 염색가공 기술을 적용하여 Pentas[®]UF 원단을 개발하였으며, 합성섬유의 다양한 기능성과 천연섬유의 질감을 양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유니폼을 제안할 수 있다.

TORAY社は Pentas[®]UF를 모든 세대의 작업자에게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범용적인 유니폼 소재로서 작업용, 서비스용을 비롯한 사무실, 병원, 간병시설의 유니폼용 등으로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

♠ TORAY Homepage News (2015년 10월 7일)